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821
----------	------

발의연월일 : 2024. 10. 22 .

발 의 자 : 김 건 · 인요한 · 김태호
이현승 · 안철수 · 김기웅
김석기 · 강선영 · 서일준
김용태 · 박성민 · 윤상현
김기현 · 강명구 · 이성권
나경원 의원(16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인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18일 우리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하고, 이미 선발대 1500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으며, 향후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추가 파병할 예정임이 공식 확인되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 청년 1만2000명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

물 뿐 아니라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에 가담한 것으로 한반도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최근 러·북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 안정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김정은과 푸틴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고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는 향후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침략전쟁에 러시아도 가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북제재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북한이 파병한 전투병력을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러시아에서 철군시키고 추가 이송계획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오관을 저지른다면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서울 작전 지도를 펴놓고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고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무모한 도발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행위가 2년 넘게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평화 정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조기에 탐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견고히 함과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IP4 파트너국과 함께 힘을 모아, 러·북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와 관련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 이행 모니터링팀 (MSMT) 활동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다.

7.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 및 안보 협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막대한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1,500여 명의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확인됨.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적으로 약 1만 2,000명의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넘어, 실질적인 전투병력이 투입되는 심각한 단계로 진입한 것임.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

는 중대한 문제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임.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고한 질서를 무너뜨리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군사적 협력은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할 경우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임.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전투병 철수와 추가 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정부는 러·북의 군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제안함.